

학술단신

노동법 세미나

도산아카데미연구원(원장 유태영)은 오는 5월 21일 오후 7시 서울 힐튼 호텔 지하 그랜드볼룸에서 '개정 노동법의 정착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주제로 조찬을 겸한 세미나를 갖는다. 발표는 중앙노동 위원회 배무기위원장이, 토론은 삼익물산 심갑모 사장이 진행한다.

문의는 (02)741-7591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인수소장은 28일 상오 10시 인문대 2호관에서 '한국과 일본, 21세기를 위한 역사교육'을 주제로 개교 50주년 기념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일 교육 개념과 역사교과서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문의는 (0361)50-8910

미술교육 학술대회

한국 조형교육 학회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중의여자전문대학 음악당 소강당 2층에서 '97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논문발표

기조-김준일/대전대 교수
교육개혁과 미술교육 방향
제1주제-노부자/한양대 교수
제2주제-박병천/인천교육대 교수
서예교육과 미술 교육의 과제

토론회

박은덕/홍익대 교수
박소영/한국 교육개발원
박수자/동국대 교수
김외식/경희대 부속초등 교사
이주연/덕성여대 교수
한태상/서울교육대 교수
박종갑/인천안수북 초등 교사
이인실/원아동 미술교육연구소
김혜숙/춘천교육대 교수

사회

박한진/서울시립대 교수
김상준/춘천교육대 교수
이수경/동국대 교수
참가비 2만원(회원은 1만원)
으로 선착순 2백명 모집하는 이번 행사는 종료 후 참가 이수증(연수증)을 발급한다.
예약은 5월 20일까지
·국민 074-01-0113-216 한국 조형 교육학회
·제일 128-10-183-776 한국 조형 교육학회
문의는 556-4135.

이시대 가족상을 모색하며

붕괴하는 시대 '벽'을 무너뜨리자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높아지는 이혼율은 현재 6쌍 중 1쌍이 헤어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혼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좋은 나쁜든 가부장 중심의 기존 가족 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제 권위를 잃은 아버지들이 설 곳이 없다. 이러한 가족체계의 붕괴는 가족 구성원들이 곧 사회의 구성원들이기에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마련이다.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는 요즘 학살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성을 절감하며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 시대의 바람직한 가족관을 모색하고자 본란을 기획한다. [편집자]

한글 사전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어버이와 자녀 등 근친자들이 한데 모여 의·식·주 따위의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람들 이라고 한다.



▲양육문제 또한 어머니의 책임을 벗어나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문제이다

의식주 수단과 종 번식 궁극적 결정 요인

복잡한 사회만큼 다양한 가족형태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의미 이상이 가족이란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 헤겔의 가족개념에 정의된 것처럼 가족은 정신의 직접적인 실체성으로서, 정신이 스스로 느끼는 통일, 즉 사람들 자신의 규정으로 삼고 있다. 이렇듯 애정을 그 바탕에 두는 혈연집단인 가족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회와 끝없이 연

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성이 결정요인

유물론의 입장을 빌어 가족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 궁극적 결정요인은 직접적 생활의 생산과 재생산이다. 이는 다시 말해 생존수단 즉 의식의 대상과 이에 필요한 도구의 생산, 그리고 인간 그 자체의 생산

이른바 종의 번식으로 나뉜다. 이렇듯 사회성의 충족이 가족을 결정짓기도 하고 반대로 일정한 역사적 시기, 일정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조직 역시 이 두 종류의 생산 즉 노동과 가족의 발전단계에 의하여 제약받는다.

초기 사회 가족의 형태는 무규율 성교가 행해지는 집단혼이다. 집단

혼에서는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전체가 서로 성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무규율 성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어떤 금지나 제한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소유권이 그리 강하게 사회를 지배하지 않았음을 대변하는데 이 역시 그 당시의 사회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채집과 수렵이 생활을 충족시키던 그때는 이동성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었기에 사유재산이란 개념이 없었고 따라서 모든 걸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 요소들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기존 가족 제도의 붕괴를 초래했고 여러차례 거듭된 붕괴로 인해 결국은 현 사회 가족 제도의 커다란 두 축을 이루는 확대 가족과 핵가족이 대두되었다.

농업사회의 시작과 함께 정착한 것이 가부장 중심의 확대가족이다. 농업으로 인한 토지소유의 의존은 농토와 부동산에 대한 재산 소유권을 인식케 했고 이때부터 재산 물려주기가 고려되었다. 이처럼 중대된 노동 분업 및 경제 생활의 요구가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에 기반한 사회를 불러왔고 그러한 가족형태를 창출하였다. 자연 질서의 계절적 순환과 생산적 일과에 순응하며 사회적 권위에 복종하는 생활 질서와 인간 관계는 정제된 삶을 조장하였다.

그런 한 부동적인 가족형태는 자본주의 산업혁명과 민주주의 시민혁명에 따라 가족 생활의 의식과 형태에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산업구조는 인구의 빠른 이동과 도시화를 촉진시키며 가족의 단위를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모시켰다.

지금의 가족은 사회가 복잡해진

마치 지식의 척도인 양 생각하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그 래야 어려운 외국어나 한자어의 사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자신의 생각을 펴는 사람들이 오히려 존중될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역시 우리가 차츰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남북한의 학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통일어가 사회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방언의 차이까지도 고려하고, 또 해결하려고 힘쓰셨다. 세종대왕 6백주년을 맞이하며, 더욱 깊어가는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해결하려는 남북한 관계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만 큼이나 그 형태가 다양하다. 독신 생활을 하는 남녀 등을 위시하여 모자가족, 무자녀 부부 가족, 자녀가 있는 핵가족, 부모를 모시는 3대 가족, 동업에 종사하는 집단 공동체, 사업과 주거를 같이하는 비혈연의 대가족,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념으로 뭉친 동지들의 생활 공동체 등 다양한 모습이 창출되고 있다.

구성요소 결속이 중요

이제는 가족에서도 의식의 틀을 벗을 때가 도래한 듯하다. 사회구성원을 결속시켜 하나로 묶는 연대성을 그 기반으로 한다면 그것은 가족의 기준에 속할 자격을 부여받

는다. 이와 반대로 이것이 만족되지 못할 시엔 표준적인 가족 형태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결속된 가족, 불안정한 가족임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가족을 공동체적으로 단결시키는 응집력과 연대성의 기반은 무엇인가. 이는 가족을 구성하는 구조를 분석해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재산소유, 부양, 상속의 물적요소와 친척, 부부, 자녀 그리고 국가의 인적요소가 그 구성요소이고 그것의 기능과 상호결속 정도가 가족구조의 단결성을 결정짓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흔들리는 오늘날의 가족상을 막을 해결책과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언젠가 있을 것은 가족에 대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원하는 바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간 유대의 실현을 강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사회적 세력의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강재은 기자)

세 시 봉

새살 돋기를 희망하며

최수정 취재부장

아프지 않다. 가슴 아프지 않다. 이 수 많은 불의들을 앞에 두고도 분노가 치밀지 않는다. 문득 글 쓰기란 얼마나 위선적인가에 대해 생각한 다. 가슴 저 밑에서 치미는 분노없이 다른이의 고통에 대한 전율없이 단지 옳다는 것에 대한 느낌만으로 썼던 글들.

5월이다. 숲은 봄나무에서 여름나무로 변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가벼워져 간다. 가끔씩 뜨거운 햇살에 얼굴 찌푸리기도 하지만 선선한 바람이 살아 있는 5월은 행복한 계절이다. 그래서인지 오월이 부여 된 의미도 정말 많다. 어린이 날에서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 탄신일까지.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땀이 있는 여자 선발대회도 이달에 열리고 신부도 5월의 신부가 제일 예쁘다고 한다.

5월이다. 자신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걸었던 수 많은 영혼. 오늘 이땅의 오월이 푸르름으로 빛날 수 있게 했던 사람들. 그러나 잊혀지고 있는 슬픈 역사의 숨결들이 있다. 아직도 5·18은 광주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는 계절의 파사로움이 가장스럽게 느껴질 안타까운 생명이 있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우리의 동료들이 있다. 살아남기 위하여 피를 팔고 몸을 판다는 이들. 계절의 설레임을 무색케 한다.

한마디로 혼재한다. 가벼움과 무거움 기쁨과 슬픔 가슴 찢어질 것과 가슴 뿌듯함이 뒤섞인 채 오월은 마구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시골벽 쪽 하지만 길이가 없고 구호는 많지만 시린 가슴은 드물다.

가벼움, 가벼움이 판을 친다. 남의 아픔에는 절대 슬픔의 무게를 실지 못한자들의 가벼움. 사방 콘크리트 벽속에 둘러싸여 리모콘으로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사는 사람들의 가벼움. 5월의 글쓰기는 그래서 너무 힘이 든다. 밝음을 지탱하는 어둠앞에 큰것들에 짓눌린 채 신음하는 작은 아픔들 앞에 땀땀 나설 수 없기에 또 다른 정의를 외칠 수 없다. 차라리 무더져 버린 내 정신의 추수에 일침을 가하려 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을 때까지 맘 속의 거울을 닦고 닦으려 한다. 탐욕과 이기심, 나태함으로 굳어버린 피부위에 새살이 돋기를 희망하며.



학창시절이란 젊음에 주어진 참된 인생



젊음이 두번 다시 오지 않듯
학창시절도 두번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보다 알차게 보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1분 1초라도 아껴서 맘을 펼칠때
그 열매는 알알이 영글어갑니다.

힘써 학업에 열중함으로써
수많은 밤을 채와 씨름함으로써
부디 일취월장하십시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